

26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5469.47 (-80.83)	727.21 (-24.48)		
↓ 금리 (연·월)	↓ 환율 (원·달러)		
3.789 (-0.014)	1322.70 (-1.90)		

금·엔화 값 ‘추락’... 안전자산의 배신

금값 연초 최고점서 28%↓
국내 13개 금 펀드 수익률
3개월 -8.6%, 6개월 -21.4%
엔달러 환율 156.93 머물러
개인 엔화예금 잔액 급증가

#. 지난 4월 금 펀드에 5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한 김모(41)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금값이 연일 하락하는 바람에 여섯 달 사이 1000만원 넘게 잃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금값이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얘길 듣고 투자했는데, 막차를 탄 것 같아 후회된다”며 “손실이 너무 커서 팔 수도 없고 스트레스가 심해 당분간 잊고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전자산의 배신일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지만, 금·엔화·국채 등이 ‘안전자산’이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26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은 온스당 4005.06달러(오후 3시 기준)에 거래됐다. 지난 1월 29일 사상 최고치(5595.46달러)보다 28.42%



눈물 흘리는 안중근 의사 후손 안의생 선생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독대 :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전시 개막식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후손 안의생 씨가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관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 의사가 순국을 앞둔 1910년 3월 뤼순 감옥에서 남긴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이 유묵은 당시 국제법이 강대국 논리에 좌우돼 약소국의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낮다. 장중에는 4000달러를 밑돌았다. 뒤늦게 여윌돈을 털어 넣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까먹는 신세가 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금 펀드 13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7.53%였다. 3개월(-8.58%), 6개월(-21.38%), 연초 후(-14.31%) 수익률은 더 나빴다. 특히 ‘블랙록월드골드’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15%대를 기록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도 망연자실이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과 TIGER KRX금현물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1.79%, -9.84%였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kova@metroseoul.co.kr



긴축기조 한은, 美·日 기준금리 결정 ‘촉각’

美, 이달 동결확률 92% 제시
공식 전망은 ‘연내 추가인상’
日 ‘인상기조’ 시기·속도 판단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동결 이후 긴축(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이 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미·일의 정책 경로와 국내 성장·물가 흐름이 한은의 다음 금리 판단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지시간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CMC)를 연다. 결과는 한국시간 29일 오전 3시 발표된다. 일본은행은 29~30일 회의를 열고 30일 금리 결정과 새 경제·물가 전망을 공개한다. 한은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유지했다. 신현송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준의장

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자료를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재는 “연준 결정이 금융여건과 자산가격을 통해 세계로 파급된다”며 “한국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다. 동시에 7·8월 선제 인상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정책 변화의 파급과 국내 여건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다. ◆9월 점도표에 남은 연내 인상 전망 미국의 이번 동결 기대는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돼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지난 23일 자 시장해설에서 페드워치가 반영

한 10월 동결 확률을 92.2%로 제시했다. 연준은 지난 9월 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현재 목표범위는 연 3.75~4.00%다. 하지만 연준 참석자들의 공식 전망에는 연내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 있다. 참석자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9월 점도표를 집계하면 전망 제출자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금리를 현 수준보다 높게 제시했다. 지난 7월 공개된 9월 FOMC의 사록에도 대부분의 참석자가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9월 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8월의 3.4%보다 높아졌다. 같은 달 비농업 고용은 전월보다 2만9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2%였다. 이번 회의에는 새 점도표가 나오지 않아 성명과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9월 전망 이후 정책 판단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핵심 자료가 된다.

◆日도 인상 방향 유지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 방향을 유지하면서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단계다.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올린 뒤에도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경제·물가와 금융여건에 따라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되, 전망 실현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하면서 인상 시기 속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발표된 일본의 9월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올라 8월의 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30일에는 금리 결정과 함께 새 경제·물가 전망이 공개돼 기초적인 물가 흐름과 추가 인상 방향에 대한 일본은행의 판단이 제시된다. 국내 물가 역시 한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9월 소비자물가와 식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8%였다. 한은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1월 26일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靑,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가닥

당초, 내년 1월에 시행 예정
美와 정보공유 2029년 유력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 간 정보 공유에 합류하는 시점인 2029년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대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두고 유관기관 등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6년 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행은 3차례 유예됐고 2027년 1월 시행으로 지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뤄질 경우 4번째 유예다. 최근 업계와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체계가 완전히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정부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내년 가동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6개국이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캐나다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참여한다. 거래가 가장 많은 미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 축하...“미래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사진 뉴시스
▲김지웅 중수청장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일부 ‘안 한 것’으로 보여”

▲윤호중 “한강버스 예산, 사실상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탄핵안 처리해야”

▲북 “지뢰폭발, 한국 조작”...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김민석 “11월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안전 예산 확보에 당력 집중”